

자국산 라면 본격 육성 위한 대규모 투자

카자흐스탄사무소

수입제품에 대응하는 자국산 라면 육성 노력

- 카자흐스탄의 국영기업인 Kazagro는 자국산 라면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2006년에 설립된 Kazagro는 농공단지 조성 및 농산물 산업개발 촉진에 관한 국가정책을 실행하는 국영농업기업이다.
- Kazagro의 자회사인 Kazagro Finance는 아스타나에 소재한 라면 제조회사인 Kazbrand에 9억 텡게(약 30억 원)를 투자했다.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은 Kazbrand는 ‘케스페바이(Kespebay)’라는 라면제품을 출시하며 시장공략에 나섰다.

수입제품이 점유한 카자흐스탄 라면시장

- 현지 언론 아스타나 타임스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라면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제품의 70%가 러시아 제품이며, 나머지는 중국, 한국, 키르기스스탄 제품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자흐스탄 자체상품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 주로 판매되는 러시아산 라면은 Big Bon, Rollton, Big lunch로, 컵라면, 볶음라면 등의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 한국제품은 진라면, 신라면, 참깨라면, 도시락 등이 진출해 있다. 가격은 진라면 325텡게(약 1,060원), 신라면 350텡게(약 1,140원), 참깨라면 425텡게(1,390)원 선이다. 한국제품은 러시아제품보다 2~3배 비싼 가격으로, 주로 대형유통매장이나 백화점의 한국제품 코너에서 판매 중이다.

| 카자흐스탄 내 판매 중인 라면제품 |

구분	봉지라면 제품		
사진			
제품명	Big Bon	신라면	Kespebay
제조사	Mareven Rollton	농심	Kazbrand
소비자가격 (Galmart*)	KZT130	KZT350	KZT130(인터넷가격)
중량	75g	120g	100g
제조국가	러시아	한국	카자흐스탄

구분	컵라면 제품		
사진			
제품명	Big Bon CUP	신라면 컵라면	Grito CUP
제조사	Mareven Rollton	농심	Torgoviy dom Amanat
소비자가격 (Galmart*)	KZT250	KZT510	KZT135 (Ramstore)
중량	85g	114g	90g
제조국가	러시아	한국	카자흐스탄

Galmart 방문 가격조사 (2018.4.5 기준) * Galmart : 카자흐스탄 전역에 유통망을 보유한 대형 유통업체

애국심을 자극하는 마케팅

- 케스페바이(Kespebay)는 자국산 제품을 강조하는 애국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면의 원료 100%가 카자흐스탄에서 생산한 밀이며, 자국산 제품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카자흐스탄 국기를 형상화한 파란색 KZ로고를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다.
- 케스페바이(Kespebay)의 소비자 가격은 130텡게(약 425원)로 1g당 1.3텡게(4.24원)꼴이다. 이는 경쟁제품인 Rollton(1.6텡게/1g), Big Bon(1.7텡게/1g)에 비해 저렴한 가격이며, 한국제품인 신라면(350텡게)에 비해서는 1/3 정도로 상당히 저렴하다.
- 일일생산량은 10만개 가량으로, 카자흐스탄 라면 시장점유율 20%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유통지역은 아스타나, 콕세타우, 코스타나이, 제즈카잔 등 북카자흐스탄 지역이며, 알마티 등 남카자흐스탄 지역은 유통을 추진 중이다.

한국제품, 프리미엄 지위유지에 주력

- 카자흐스탄 정부는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자국산 제품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저가라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에서 프리미엄제품 출시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업체는 다양한 맛, 정확한 고객타겟, 고급원재료 및 세련된 포장 등을 통해 프리미엄 제품을 선제 출시하고, 고가제품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 Astana times, Kazakh instant noodles producer seeks to capture domestic market (2018.03.09.)

Kazpravda, «Кеспелбай» завоевывает рынок (2017.11.11.)

Dknews.kz, Глубокая переработка высокого качества (2017.11.16.)